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선정 조속 시행”

문체부, OTT 자체등급분류제·펜션 층고 완화 등 추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3층으로 제한했던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는 4층으로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시장 창출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가 큰 사업들을 적극 검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빠른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5대 과제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거대자료(빅데이터)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다. 신산업 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선정됐다.

문체부는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화 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기존에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통돼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받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만 하게 된다.

문체부는 한류 문화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정보분석 관련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권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미이스(MICE)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과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3층→4층)를 함께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여행업계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 규제 혁신을 위해 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분야 간담회 등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핵심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를 포함해 규제 전반을 재검토한다.

방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규제 정비, 관공호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술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게임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제 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며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군산시의 군산문화도시센터는 전주관광거점도시추진단과 13일, 관광거점 시군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관광거점 시군연계사업 추진 협력

군산시-군산문화도시센터-전주관광거점도시추진단, 업무협약

군산시의 군산문화도시센터는 전주관광거점도시추진단과 13일, 관광거점 시군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해 군산 문화도시사업의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에 힘을 실게 됐다.

군산문화도시센터는 전주관광거점도시추진단과 전주, 익산 등 인근 시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7분화스테이 시범지역인 옥산면과, 신흥동마을이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네문화추진단, 동네문화카페, 동네문화지기 팀과의 협업으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감성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산이 문화도시로 한단계 더 나아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광관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영상 크리에이터’ 모집

축제 조직위원회, 22일까지 접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소리축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아낼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올해 축제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관객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국 대학생 및 공연예술축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은 영상 기획 및 구성, 촬영, 편집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로 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취재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축제 기간 꾸준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4명으로 2명씩 1개 조로 구성해 총 2개의 크리에이터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상은 축제의 현장성과 재미를 담아 30초에서 1분 정도로 제작하면 되고, 축제 기간 1개 팀당 7개에서 10개 정도의 영상 콘텐츠를 격일로 제작해 완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은 소리축제의 공식 SNS 채널 및 유튜브 등



에 게재된다.

접수는 네이버 폼(<http://asq.kr/ys8723Ni>)을 통해서 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및 영상 자기소개서(30초~1분)와 영상 포트폴리오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오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동시에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및 아이디 카드와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뉴시스

장르문학 공모전 ‘리노블’ 원고 접수

장르문학 공모전 ‘리노블 시즌 1’ 원고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모전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콘텐츠 제작사 CJ ENM, 출판사 해피북스투유, 웹툰 제작사 투유드림이 공동 주최한다. ‘다시 소설에서, 다시 웹툰으로, 다시 영화로’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수한 지적재산권(IP) 발굴과 다양한 2차 콘텐츠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밀리의 서재와 CJ ENM은 선정작에 전자책, 오디오, 영상 콘텐츠의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투유드림과 해피북스투유는 각각 웹툰과 종이책 출간을 추진한다.

작품 모집 분야는 미스터리·스릴러, 로맨스·학원, 코미디·드라마, 느와르·액션, SF·판타지 등 5개 부문이다.

전 부문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 장르별 최우수상 수상자 5명에게는 각 1000만원의 지급한다. 모든 당선작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으로 출간된다. 작품에 따라 웹툰과 영상 제작 기회도 제공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다. /뉴시스

아시아 대표할 K-애니는?... ‘디지콘6’ 참가작 모집

아시아 최대 규모 단편 애니메이션 시상식 ‘2022 디지콘6 아시아 어워드’에 참가할 단편 애니메이션 국내 공모가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음달 31일까지 ‘디지콘6 아시아 어워드’ 참가작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24회차를 맞은 ‘디지콘6 아시아 어워드’는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최하며, 한국·중국·싱가포르·태국 등 아시아 15개국이 협력해 우수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선발하는 시상식이다.

먼저, 콘진원은 한국지역어워드 공모를 주관, △금상(1편) △은상(2편) △차세대상(1편) 등 4개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15분 이내 분량의 국내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2D·3D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등 표현 방식이나 장르, 테마는 자유이며 디지털 처리한 모든 영상이면 된다.

응모작품 수에 제한이 없어 복수 응모가 가

능하다. 다만 차세대상은 신진 창작자 발굴을 위해 ‘디지콘6 아시아 어워드’ 수상 이력이 없는 감독 또는 데뷔작품에 한해 선정된다.

수상작에 한해 소정의 상금과 일본 본선 참가를 위한 항공비와 숙박비 등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일본 본선에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지역어워드에서 선정된 작품들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국은 2003년부터 ‘디지콘6 아시아 어워드’에 참가, 최현주 감독의 ‘투미네이션’, 김강민 감독의 ‘시승꽃’, 이종훈 감독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 20편의 본선 수상작을 배출했다.

지난해 한국지역어워드에서 수상한 △장승욱 감독의 ‘바다 위의 별’ △전승배 감독의 ‘건전지 아빠’ △이민지·이재아·신수현 감독의 ‘목욕’ △이용욱 감독의 ‘외계인 농부’ 중 ‘건전지 아빠’는 일본 본선 어워드에서 ‘아시아 은상’을 수상했다. /뉴시스

진안고원물 6월한정 1, 2, 3일 20% 할인전

01일
11일
21일

청정 진안고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농산물 할인 판매 **20%**

02일
12일
22일

HACCP 인증
GAP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할인 판매 **20%**

03일
13일
23일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중삼제품류
할인 판매 **20%**

상품페이지에서 **20%할인쿠폰**을 꼭!! 발급받아 사용하세요!

진안고원을 바로가기

NAVER 진안고원물 검색

D+M 진안고원물 검색